

2019년 8월 26일, 서귀포시 동홍동 오안일 씨 댁, 오창순 조사.

오안일(남, 1948년생, 서귀포시 동홍동)

- 서귀포시 서상효동 출생으로 결혼 후 동홍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큰 하천을 넘을 때 여자귀신이 나타나 칙오름 위로 홀리거나 연못에 빠뜨리기도 해서 사람들은 밤에는 이 길을 다니지 않으려 했다.

**[조사자]** 거기 전설 같은 건 엊우가?

**[제보자]** 전설 같은 건 거기 관한 전설 말고 동상효하고 신례리 쪽으로 가다 보며는 칙오름 동쪽에 큰 내가 있는데 이 하천은 백록담에서부터 쇠소깍까지 연결하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하천이라고 해서 큰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갈 때에는 상당히 제베나무가 무성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큰 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낮에도 머리발이 설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이런 하천을 지나가야 시내로 가게 되는데. 특히나 밤이거나 비가 촉촉이 올 때에는 어떤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 남자가 밤에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서 연못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칙오름 꼭대기까지 올려 보내기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무서운 이런 농담이라든지 전설이 있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를 밤에는 통하지 않으려고 헷지마는 부득이 넘어갈 일이 있어 가지고 혼자만 넘어가기 곤란하니까 친구들이 같이 가도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연못가에 사람을 빠뜨리기도 하고 칙오름 꼭대기에 알레도 하기도 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핵심어: 큰내, 칙오름(칡오름), 여인, 밤, 연못, 귀신